홀리타임즈(춘천성시신문)
춘천시 운교동 174-3 와이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행인: 한 균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홀리타임즈

성시비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HOLY TIMES 제110호 2008년 1월 1일

희망과 비전의 계절, 1월!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옛것을 거두어가시고
새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푯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INDEX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시화운동을 섬겼던 4년의 시간을 뒤돌이보며...
예수심내의 방학생활



우리곁에 있는산 두류산



춘천성시신문 새로운 이름으로 "홀리타임즈"가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2008년 새해맞이하세요~

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이광준입니다.

먼저 춘천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도시의 성시화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홀리타임즈(춘천성시신문)를 통하여 2008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기도와 믿음의 생활을 일깨우는데 전력해 주신 춘천성시신문이 새롭게 홀리타임즈로 재탄생됨을 축하드립니다. 성시신문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발행인 한 균 목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춘천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홀리타임즈를 비롯한 기독교인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성시화의 밑거름이 확실히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춘천의 삶이 풍요로운 경제중심도시 육성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있어 지역경쟁력 강화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우리 춘천시는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춘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자세, 진취적인 기상, 창조적인 사고로 활기차게 움직이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춘천이 변혁의 시대에 시대흐름을 똑바로 보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춘천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홀리타임즈가 더욱 발전하여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선교단체,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면서 우리 춘천의 성시화를 앞당길 수 있는 복음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시화 운동의 뜨거운 열기가 지역 도처에 항상 가득함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08. 1. 1.
춘천시장 이 광 준



2008년 새해, 힘차게 출발하세요~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허 천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막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08년 새해에는 춘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경제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의 염원을 알기에 한 편 국회의원으로써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국회의원의 직분을 맡겨주신지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잊지 않고 불철주야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 홀리타임즈를 통해 인사 올립니다.

춘천시민들에게 지난 4년여의 시간은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야당의 초선으로서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속에서 아쉬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춘천도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춘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묵묵히 디딤돌을 놓았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 모두 춘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뛰어 보자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2008년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년 새해 아침
국회위원 허 천

www.seeds21.co.kr
컴퓨터로 만들어 가는 세상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춘천기독교연합회장 한 균 목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기독교연합회 회장이란 직임을 맡고 일 년이란 짧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추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춘천기독교연합회를 돌아보면 회장의 자리가 명예직처럼 인식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애써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일 년짜리 단기적 사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회장으로 선출 된지 벌써 3개월째이기에 남은 9개월 동안 어떻게 사역을 펼쳐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기도하던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면서 춘천이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독교문화축제의 도시, 춘천!

- 성탄절축제 : 이번에 처음 실시한 제1회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던 관계로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수정 보완해 나감으로 충분히 성탄절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 부활절축제 : 춘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온 교회가 연합하여 축제화 함으로 춘천성시화의 길을 열수 있다고 봅니다. 부활주일 오후 2시 야외음악당에서 춘천의 전교회가 연합 집회를 한 후 도청광장까지 십자가행진을 실시하는데, 전처럼 교인들 전체가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분장한 사람들만 연출에 따라 행진하고, 교인들은 도로변에서 찬송을 부르며 행진을 맞이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여겨집니다.
- 추수감사절축제 : 춘천시교회 연합으로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야외음악당에서 예배드릴 때 불우한 이웃을 위해 특별감사헌금을 한 후 농산물 형태의 가장행렬을 도청 앞까지 실시, 춘천을 위해 기도함으로 춘천을 기독문화의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독교연합회 회비의 제도화

연합회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 정해진 회비를 자동 납부하도록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100교회 정도 자동납부교회가 정해지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교회를 회원의 자격 및 연합회활동에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회비를 내는 교회가 현저히 적을 경우에는 연합회의 위상이나 힘이 발휘될 수 없고, 행사를 위해 회장과 임원들이 각 교회에 특별회비를 요청하는 힘든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춘천 성시화를 위한 지역별 성시화 지회를 결성

기독교연합회가 너무 막연한 조직이라 임원교회들만 활동하다 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동별 성시화 지회를 결성하여 지역별 조직체계를 결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춘천성시화 후평동지회(지회장, 총무 등 임원조직 결성), 효자동지회 등. 그리고 지회별 성시화 집회를 열고 지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춘천성시화를 향한 큰 틀을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4) 성시화 기금 마련을 위한 기독교사업자연합회 결성

성시화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막상 기독교연합회비 외에 성시화 회비를 추가로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춘천시내 2천여 기독교사업자연합회를 결성하여 업체당 월 1만원의 회비를 부담하게 하고, 연합회 측에서는 기독교사업장 이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사업자 간의 상호교류를 도모함으로 기독교인 사업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비전은 사실 꿈으로만 끝날 수도 있지만, 제 임기 내 기초만이라도 놓을 수 있다면 비전 성취도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이것은 물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기에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겠고 확임 있는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 남은 임기 중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오니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춘천교역자연합회장 피 종 호 목사



새해를 맞아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제48차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장으로 선임된 피종호 목사 인사드립니다. 그간 앞서 교역자연합회를 섬기시며 일하셨던 분들의 열정과 애정을 기억할 때 회장의 중책을 맡으면서 기쁨보다는 사명감과 중압감이 무겁게 누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연합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 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면 당연히 "선교명령"이겠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들의 하나 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너무나도 간곡히 부탁하셔서 가슴에 새겨졌고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17:21에 있는 대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아버지를 믿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연합하는 일에 나름대로는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는연합에 가치를 두지 않는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가 이 사회와 교회에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최근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연합하는 일에 몸을 던져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에 힘들지만 임원들과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연합운동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춘천에 몸담고 있는 교회의 교역자들을 섬기고 하나 되게 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 깨닫고 기꺼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원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가 하는 숫자놀음에 빠지지 않고 차분히 하나 되는데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단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우선 2008년도에는 기독교연합회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연합운동에 함께하는 일은 몰론이고 주어진 일 즉, 광복절기념 연합예배와 원로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전통에 따라 감당하고, 또한 교역자들의 하나됨과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몇 차례의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친목을 위한 나들이와 체육대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시며 동참해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한 춘천의 교역자연합회는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새해에 목사님들의 건강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엄청난 부흥이 있으시길 기도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춘천장로연합회장 마 철 규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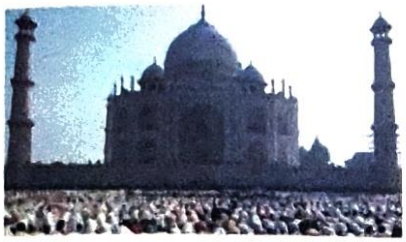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춘천장로연합회장직을 맡게 됨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장로회원 여러분께 영광을 돌리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며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로연합회 600여 회원들은 춘천의 성시화와 연합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적극 동참하며 350여 춘천의 교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 춘천이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로 힘이 되어 주시기 바라며, 저는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새해에 건강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직장과 일터에 넘치기를 기도하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한 선교전략 재정비!

이 글은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CCF 연합선교부흥회 강사로 온 최바울 선교사가 교역자들과 이 주제에 대하여 나눈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07년 7월 19일 오전 아프가니스탄 단기봉사활동에 나섰던 분당 샘물교회 단기팀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전세버스로 이동하다가 아프간 무장세력에 의해 졸지에 납치되었다. 이후 이 피랍사건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태는 제 3세계를 이해하는 최고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많은 비난과 비판이 선교학적이나 문화 인류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다.

첫째, 선교는 지역전문성을 기반으로 한다. 현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정보는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 응용하는 것은 선교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선교의 상황화 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지인들을 자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하는 이슬람권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은 매우 피폐해 있다. 미국이 2001년 하반기 무력 개입이후 이라크분제로 발목이 잡혀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월 공언했던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 아프간 카르자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였는데, 그는 지방군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중앙정부를 천위부대로 석권하였다. 아프간 정쟁에서 미군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벌들이 반발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지금 지방군벌들은 카르자이 대통령에게 협력하지 않는다. 또 파쉬툰족이 과거 탈레반의 기반 종족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카불과 남부지역 전역에서는 탈레반과 마피아들이 섞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정책 중에서 테러와의 전쟁과 더불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마약의 원료 중 하나인 양귀비 재배가 아프간 주요산업의 하나이다. 당연히 이를 금지했고 지역 산업의 붕괴가 일어나 마피아의 활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피폐한 상황과 공권력이 붕괴되어 있으니 마피아들이 횡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기팀의 사역 운영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데도 준비단체는 초청만 하고 단기사역은 참여교회의 재량에 맡겨버린 것은 큰 실수라 할 수 있다.

둘째, 가보지도 않고 갑논을박 소리를 높이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일반 언론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들까지도 샘물교회 단기 팀을 위험한 나라에 선교활동을 위해 떠난 '몰지각한 기독교인'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한국동란 때에 전쟁과 전쟁직후 남로당의 활동으로 극심한 치안 부재상태에 있던 한국에 수많은 서구 NGO요원들과 기독교단체들이 전쟁의 고통과 가난에 처해 있는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활동을 전개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강물에 뛰어든 사람을 질책하는 것은 인간성을 거부한 기계의 심정이다. 아프가니스탄이 강물에 빠진 그런 위급상황인가라고 질문할 것이다. 한번이라도 아프가니스탄을 가본 사람은 다 그렇다고 동의한다.

셋째, 이슬람에 대한 무지가 극히 상식적인(?) 오류를 낳게 하는 것이다.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의 봉사활동이 이슬람을 자극한다는 극히 상식적인(?) 주장이 적지 않다. 그러한 우려를 이해하지만 이슬람권 선교를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는 매우 한심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슬람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다. 다음으로 무속신앙 소유자나 불교신자들이다. 무슬림들은 창조주 신에 대한 신앙을 부인한 자들을 혐오한다. 만약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거나 "나는 부처를 믿는다."고 말했다가는 거의 '돼지' 취급을 하는 것이 무슬림들이다. 이슬람권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고 말하면 대부분이 반가워한다. 그러면서 골수한 혹은 이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그들은 진지하게 대화하며 상대해 주는 것이다.

넷째, 이번 사건을 작년 아프가니스탄평화축제와 연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해는 하지만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인 또는 한국기독교인을 목표로 한 기획납치사건이 아니다. 금품을 노린 지역마피아들이 고급버스를 세워 약탈 행위를 하려다 외국인인 것을 보고-처음에는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전혀 몰랐다고 후에 탈레반 대변인측이 고백했다. 무장 강도들은 이들을 금품을 목적으로 납치했다가 후에 생각이 바뀌어 돈을 목적으로 탈레반 측에 넘겨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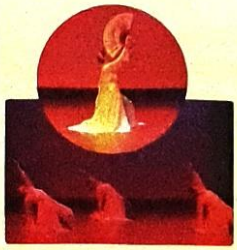
작년 아프가니스탄평화축제는 우리 단체와 아프간 정부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행사였다. 아프가니스탄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정부는 우리 모두에게 비자를 다 발급해 주었고 입국도 시켰다. 물론 후에 한국정부의 강력한 외교개입으로 후발 그룹이 입국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지에서 6일 동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 없이 5개 도시에서 평화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아프간정부는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임을 알고 초청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프간정부를 속이고 은밀히 하는 것처럼 난리법석을 했다. 오히려 작년 행사가 한국정부나 일부 현지 사역자의 방해공작 없이 잘 진행되었다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국내사정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목표로 한 'National Healing Program'은 효과를 봤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에 '안정이 정착된 아프가니스탄'이 알려지면서 투자는 활성화되고 재건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아프간 현지 경제 사정도 호전되면서 강도 및 지역마피아, 탈레반 세력은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슬람 및 아프간 사정을 깊게 알지 못하는 한국정부와 사역보다는 다른 목적에 관심이 많은 소위 NGO꾼들의 방해가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을 초래하게 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더욱 더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영적 콘텍스트를 이해하고 오히려 전심으로 헌신하며 신속한 지구촌복음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번 2007년을 '1907 again'으로 기념하며 올해를 한국교회 선교부흥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최전방지역에 보낸다는 비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6월에는 전국적으로 도시들마다 연합집회를 하였다. 이러한 헌신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분명 한국교회에 대한 사단의 영적 도전이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지혜가 '십자가'와 '십자가 정신'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 교회를 죽이는 거짓이 될 것이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역적 기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한다. 한국교회 내에 지혜롭다고 하는 분들이 조선땅에서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영국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무모하고 어리석은 개죽음이라고 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성경과 교회사는 강력하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이 하늘의 영광도 없다. (개척정보 코너스톤 9월호 참조)

[편집위원 고 재 만]

"어린이 마음마다 하나님 사랑 가득"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 4 · 5 · 6 · 7세 연령별 선착순 모집
♣ 저소득층 자녀, 목회자 자녀, 영재 감면 혜택
♣ 정규반(오후 2시30분까지), 종일반(오후 7시까지)
♣ 특기교육: 영어 · 가베 · 미술 · 유아체육 · 음악 · 과학 · 한자 · 놀이학습지도
♣ EQ발달을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 · 구연동화
♣ 자연학습장 운영, 실내외 놀이터, 넓고 쾌적한 강당
♣ 어린이 눈높이의 신앙교육(주1회 어린이예배)
* 교사모집 : 성우 · 영재사고력동 논리과 (크리스챤 우대)
* 신앙과 영성의 표준인 성경말씀의 교훈을 따라 기도의 어머니처럼 전문적인 전인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문의: 033)255-5776, 010-9533-5776
◆ 위치: 춘천시 후평2동 C.C.C.아카데미하우스 내(한신아파트 옆)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워십댄스 겨울 강습회(한국무용 편)

✚ 일 시: 2008년 1월 3일~ 2월 21일까지
✚ 시 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9시30분
✚ 장 소: 경원대 태권도체육관 (석사동 우석초교 옆)
✚ 내 용: 한국무용풍의 찬양 워십을 배우는 시간 몸으로 찬양드리기 원하는 누구나 참여가능강습회 두 달 과정으로 두곡의 찬양곡 익힘
(선교회비는 유료, 수업이후 차량운행 가능)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263-6022 · 017-374-2440



성시화운동을 섬겼던 4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 영 춘 목사

지난 시간동안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주신 많은 선배님들과 춘천의 봉역자님들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린다. 새로운 회기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된듯하여 조용히 기도원을 찾아 지난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막상 성시화운동의 사역을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하나님과 봉역자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자꾸 앞선다. 그러면서도 함께 하던 분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지면을 통해 나누고자 한다.

성시화운동의 동참하기 까지

조용히 지난 4년을 뒤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사실 성시화와 함께 한 인연이 참 끈질기게 연결되었다. 교회는 다니되 구원의 확신이나 기쁨 없이 다니다가 74년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에 불이 붙게 되었다.

그 당시 처음 성경공부를 하면서 성시화 요원 훈련교본을 통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에 첫 신앙의 마음을 드리며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그 후 인천에서의 대학생활때 함께 하던 춘천의 친구들(지금 태국에서 선교하는 최철만 선교사와 또 두 친구들과 함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전진기지를 세우자는 아심 찬 비전을 가졌다.

춘천과 선교적 변화를 이룸 중심지로 춘천 중도에 선교 타운을 만들어 장차 지도자들과 청소년들을 양육하자고 결의하고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하였었다. 군대를 제대한 최철만 선교사는 선교타운을 위해 중도에서 신혼 출발과 사역을 시작하였고,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 80년 청소년집회를 어린이회관에서 가지면서 성시화를 위한 비전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단순히 열정만 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전도단 훈련과 사역에 동참하여 최선교사는 서울에, 나는 예수전도단 광주지부를 개척한 후 세계선교의 타운을 위한 훈련내면에 선교농장을 15만 5천평을 개척하며 일구게 되었다. 후에 여러 과정을 거치며 결국 신학을 공부한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춘천에 오게 되어 교회를 세워 지속적으로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며 이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자리에 항상 있었다. 그러다가 2003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시본부 사무총장으로 임명받아 성시화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사무총장으로의 첫 출발

그러나 처음 출발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먼저 사역을 하시던 전임사무총장과의 불협화적인 인수인계와 함께 갑자기 따라오게 된 많은 빚더미 문제, 열악한 사무실운영, 또한 미묘하게 얽힌 다양한 그룹들 간에 상반된 이해관계 등 해결해야할 사안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성시화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는데, 다행히 인도의 이영길 선교사의 논문을 통해 정리되어, 의회기구로서의 기독교연합회와 행정 실무기구로서의 성시화운동본부, 홍보기구로서의 성시신문으로 자리매김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춘천 전체의 변화를 위한 원활한 조직을 위해 기독교연합회 회장과 본부장의 하나 됨을 통한 연합의 기조위에 두 개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모든 기독교기관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는 일들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성시신문의 재편을 위한 일에 산업디자인과 출신의 전문요원인 김미경 간사가 사역에 헌신적으로 동참하면서 성시신문은 새로운 필진을 갖추게 되었다.

성시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역들

그 후 강원도연합회의 18개시군의 강원기독교연합회 횃불기도회 만명집회를 서두로 하여 십자가 평화대행진 성시화 선교주간을 통한 선교기관과 교회의 연합 등등 많은 연합운동과 문화운동에 불을 지피며 부흥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였다.

특히 당시 춘천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던 현신도시의 선정문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적극 개입을 하면서 시민 연합운동으로 발전하여 이만명의 춘천시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후엔 강원도나 춘천시의 중요한 정책들의 자문을 이루면서 사회의 필요를 깊이 있게 감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비전이던 외국어고등학교 선정 설립문제에 이단과 함께 결탁되어 있던 시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통해 춘천의 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좌우충돌 문제 해결을 위해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춘천의 건전한 자발적 시민운동의 부재를 타결하기 위한 춘천 내 3개 대학교수들과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한 춘천을 사랑하는 미래 발전 포럼을 만들기로 하였고, 이에 춘천 창조도시 포럼을 창립하는 사역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일들과 함께 2000년엔 연합회와 성시본부 사무실도 그동안 정들었던 원드비전을 떠나 운교동의 와이신협 건물로 이전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어왔다. 이런 사역이 활성화 극대화되기 위한 바탕으로 기독교 경영인들과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며, 한교회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러나 이런 사역들은 한사람이나 한세대만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새로운 동력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임원들이 새포도주가 되어 새로운 성시화를 위한 부대를 채워가야 하리라고 본다.

이제 임기를 마치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더욱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며 나아가고 싶다. 그동안 물심양면 사역을 위해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드린다. 춘천이 성시화를 통해 큰 영광과 축복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온몸으로 예수를 만나는 교회

성암교회는 지난 1960년, 춘천 학곡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여 널리 꽃피운 성숙하고도 아름다운 성서적 · 복음적 교회이다. 온 몸으로 예수를 만나는 교회, 하나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마중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날마다 삶을 깨워 영혼을 초월하기를 격려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선한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하는 여기 성암교회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자.

의미 있는 교회 공동체 탐방순서로 성암교회(허태수 목사)편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목사 허태수

성암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교회이다. 허태수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은 1982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담임목사의 지병이 악화되어 남은 사역을 돕기 위해 사역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지금부터 25년 전의 일이다. 허 목사는 부임 초기부터 기존 수구적 목회와는 큰 틀에서 차원을 달리해왔다. 지난 25년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spirit)을 현대적으로 재현해보고자 누구보다도 고민하며 애를 써온 나름대로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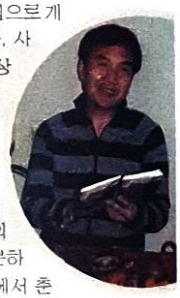
수구적 목회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던 허 목사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처럼 자주 산을 찾았다. '월요산행'이라고 이름붙인 월요일마다의 산행에서 그는 갈릴리산에 올랐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랐던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와 명상을 즐겼다. 때로는 홀로가 아닌, 뜻이 통하는 몇몇 지인(知人)들과 함께 대화하며 토론하던 '월요산행'은 300회를 넘기면서부터 그 횟수를 세는 것도 포기했다.











복음 유통 공동체의 꿈

허태수 목사는 필력(筆力)이 출중한 목사로 잘 알려져 있다. 허 목사의 힘 있는 글은 묵상의 힘일까. 허 목사의 글은 춘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수많은 고정 독자를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금까지 허 목사가 출간한 단행본들은 모두 20여 권 정도. 허 목사의 이름으로 신문에 실린 칼럼이나 사설 같은 짧은 글들은 기억하기조차 힘들다. 이러한 자산을 기반으로 허 목사는 최근 교회 공동체 내의 일꾼들과 함께 출판사 사역도 시작했다. 도서출판 『영혼의 약국』이 그것이다. 허 목사는 출판사역을 단순한 출판 업무만으로 국한시켜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출판이란 복음 유통 공동체를 이루는 도구인 것이다. 더 나아가 출판은 영적 교류의 장이요, 파편화 되어있는 '지역 교회와 지역 교회를 잇는 우주적 교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마당이다. 허 목사의 꿈은 '몸과 영혼, 마음'을 터치(Touch)하는 사역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허태수 목사는 최근 교단의 '감리사'가 되었다. 이전에도 교단의 중요한 책임을 맡아 일한 경험이 있지만 특히 감리사는 감리교회의 큰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리로 매우 분주한 자리이다. 허 목사는 바쁜 목회 일정가운데 언제 글을 쓰는 것일까. 허 목사의 글쓰기 비결은 토막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허 목사의 손을 떠나지 않는 것은 작은 메모장. 그는 짧고 긴 거리를 오고 가면서, 중요한 회의에 참여할 때도 늘 메모하고 스크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어디 이뿐일까. 허 목사는 성경을 깊이 있게 꿰뚫는 통찰력이 있는 목사로도 유명하다. 허 목사는 많은 말을 하는 대신에 짧지만 함축적은 언어를 사용하기 좋아한다. 이는 깊은 묵상과 사색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이 분명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성암교회는 최근 2-3년 전부터 급격한 변화의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바람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기뻐하며 흡족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다.

변화는 모든 부분에서 감지되는데, 그 첫째는 목회자 공동체의 구축이다. 성암교회는 모두 5명의 전임목회자가 있는데 사례비부터 평등하다. 목회 연한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보편적 한국교회의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의 사례비 격차를 생각하면 놀랄 만한 혁신이다. 그 다음이 소그룹(속회모임)의 변화이다. 성암교회는 소그룹을 은사별, 자원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탁구 소그룹, 산행 소그룹, 사진 소그룹, 성암FC, 오카리나 앙상블 소그룹, 크로마하프 앙상블 소그룹, 플레도스 중창단 등 10여 개의 특성화 그룹을 중심으로 속회 모임이 이루어진다. 속회의 변화로 모든 성도의 웃음지수, 기쁨지수가 증가했다. 최근 청년사역의 놀라운 부흥도 이러한 사역의 열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쌀 나누기 운동인 『기쁜 가게』의 사역 또한 내실 면에서 춘천의 자랑이 된다. 이를 통해 많은 주변의 소외받은 분들이 주님의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이다.

더 멀리 더 위대하게

허 목사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감리사가 된 이후 소속 지방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방회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고 교단내의 C목사는 말한다. 지방회의 모임 분위기가 밝아졌고, 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이 파격적으로 바뀌었다. 첨저하게 민심을 듣는 바닥으로부터의 변화이고, 초기 교회의 수평적 코이노니아의 회복이다. 지방회 소속 교회의 청년 커뮤니티의 꿈은 연합운동의 꽃이다.

성암교회의 비전은 "하늘 말씀의 삶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다. 쌀 은행인 『기쁜 가게』, 출판사인 『영혼의 약국』, 영성공동체인 『성암 수도원』의 설립의 추구가 장기적 꿈이다. 허태수 목사와 함께 동역자가 된 이삼용 · 홍혁수 · 김규현 · 송성진 목사, 그리고 안박순 · 조은구 · 임규현 · 권병균 장로 등이 있기에 하나님나라 사역은 더욱 아름답게 꽃피리라 의심치 않는다.

[취재 편집위원 최상도, 사진 김미경]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이전 오픈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본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 영혼의 양식

주님을 위하여

베드로전서 4장 12~14절

김 기 만 목사 [옥산포교회]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믿음으로 굳게 선자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을 드러낸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바치셨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자! 주님을 위한 고난은 나의 상급이다. 주님 때문에 임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은 장차 받을 면류관이다.

믿음을 굳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인내하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하고 풀어지며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을 위한 헌신에 인색하지 말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하면 일어난다.

눈물로 씨를 뿌리자!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하자! 적당히 하는 자는 유익함과 열매가 없다.

주님을 위해 환경, 물질, 건강, 시간, 은사를 통해 영광을 돌리자!

성도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셨다.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 살자.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자. 주님을 위한 삶은 영원하다. 위를 바라보자.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님을 위한 삶을 영위하자. 주님을 위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 사색의 창

작은 교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 부흥 온다!

한국 교회의 모세협관,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 출범했다.

'작은교회운동'은 5월 31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의 공존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장 엄신형 목사는 "나도 삼각산 소나무 아래에서 방 한 칸 없이 목회를 했을 때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설움을 많이 겪었다"고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된 일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명심하고 낙심하지 말자"고 격려했다.

전국 4만5천여 개의 교회 중에 75%(3만3750)는 작은 교회, 전세 교회, 미자립 교회 및 농어촌교회이다. 작은 교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다. 개척은 외면당하고, 작은 교회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 모세협관과 같은 작은 교회, 바로 그 교회들이 일어서야만 한다. 작은 교회가 일어설 때, 한국 교회도 일어설 수 있다.

극동방송에서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 참여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 목회자는 사역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목회자의 한계를 느낄 때'(28%)를 꼽았고, '젊은 일꾼 부족'(18%), '성도들의 오해'(15%)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 춘천에도 매년 새로운 교회들이 약20여개 이상 개척을 하며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이제 이를 위한 범 교단적인 관심과 기독교연합회의 개척교회를 위한 인큐베이터 센터의 역할이 참으로 필요한 때라고 본다. 그래서 지역의 영적인 문제와 개척교회가 가질 수 있는 소외감이나 물질적인 지원의 부재로 인한 고통 등을 지역에 있는 선배목회자나 교회들이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주고 나눌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작은교회살리기운동'을 하고 있는 박모 목사는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나 개척 교회가 안되는 문제를 놓고 철저한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개척 교회 농촌 교회가 죽어가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큰 교회들은 타교인의 큰교회로의 수평이동에 자제하여 불신자 전도와 사회에 빛의 역할에 주력하여 교회가 유람선교회가 아닌 구조선교회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겠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가 효율적인 전도구조로 작은 교회와 큰 교회들이 서로 공존하며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이러한 예로 경기도 광주의 평화교회(담임:이동현목사)는 매년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교단의 벽을 넘어 초청하여 위로하고 재원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지역도 20%의 복음화율을 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개척교회의 활성화 방안일 것이다. 작은 교회들이 더욱 전도에 박차를 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교연합회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진정 하나님의 꿈, 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꿈의교회 홍순석 목사]

|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성명 연락처 첨부)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기사투고) T.256-1260~1 F. 033)257-1260





솟아나는 우물을 얻은 삶

마담포라 황순자 부교(춘천구세군)편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얼마 전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한 가지 발표를 했었다.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소리는 무엇인가라는 연구였다. 이를 알아내려고 연구진은 3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온종일 심한 육체적 운동으로 몸을 피곤하게 만든 뒤 잠에 들게 하고는 이들이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알람 소리와 닭 울음소리, 60데시벨이 넘는 높은 경고음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실험대상자들은 어떤 소리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애야 일어나야지!"하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려주자 어떤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2월에 울리는 구세군의 종소리는 민족과 조국 교회를 깨우는 어머니의 목소리와도 같다(창6:3; 요6:44; 엡5:14). 구세군 모메(母姊)의 소리를 들고자 황순자 부교를 찾았다.

영적 싸움의 손은 내려갈 줄 몰랐고

자리를 잡자 황순자 부교(권사, 64세)가 입을 열어 한 첫 말은 불신 남편과의 오랜 구원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교회에 나가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된 결혼생활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부부는 의상실을 경영하면서 수십억을 벌었었다고 한다. 나중에 남편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거의 잃었지만 영적 다툼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소망의 길을 따라 가정을 구원하는 싸움은 손이 내려갈 줄 몰랐다. 40일, 100일, 1,000일 새벽기도로 이어진 그녀의 간청은 폐암 말기로 병원에 있으면서도 방문한 전도자를 핍박하던 완악한 그녀의 남편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많은 역사를 체험하였다. 그녀의 여정은 안식으로 거의 끝나가는 듯하다(동양사상에 심취되어 인도에서 공부하며 가이드를 하는 아들은 이제 "기독교가 최고이다."라며 주님께 무릎을 꿇 시간이 다 된 표징이 보인다고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므로(고후6:14-18) 우리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소멸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시며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복격한 햇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녀의 인생을 통해 읽게 되었다(시90편). 황 부교는 "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도다. 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라고 기도한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신앙고백 했다.





주님의 길에서 열매■ 맺으며

만학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부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는 장모님을 가장 존경한다는 사위(이관형 권사, 한길교회)가 자랑하듯 말을 한다. 황 부교는 현재 강원순복음신학교 3년과 송곡대학 사회복지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녀가 52세에 중등과정 검정고시를 보았는데, 그때 당시 강원도 최고령합격자였단다. 황 부교는 당신이 39세에 흑달(황달보다 더 심한 병)로 누워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남편, 자식들 모두 구원도 못 받았는데 죽을 수 없으니,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 후 치료함을 받고 구세군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국외에 나가서 선교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늦은 나이에 공부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녀에게 영광의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 지혜로운 것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약2:1; 고전2:25). 지금은 요선동에서 의류점 '마담 포라'을 경영하며 딸의 의류점 '최무숙'을 도와주고 있지만, 공부를 마친 후에는 국외로 나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교회당들을 건축하여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는 일이 당신의 사명인 것 같다고 말한다. 오! 하나님이여, 이제 그녀의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느6:9).

생수의 샘인 주님과 함께

황 부교는 40년이 넘게 의류점을 해 오고 있으며, 또한 한 번도 이적해 본 적이 없이 춘천구세군교회를 40년이 넘도록 다니고 있다. 편한 교회를 찾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철새교인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한결같이 한 우물을 파는 그녀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딸과 손님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그녀의 딸도 의류점을 경영하고 있다. 취재하는 중에 손님들이 오고 간다. 딸이 그들은 맞는다.

손님 중에는 그녀의 단골이 많다고 한다. 아브라함 시대에 우물을 파고 또 이삭의 시대에 우물을 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에서 풍성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의 사람들이 주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함께 계시는 자(창26:22-28)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인 사하며 의류점을 나온다.

[취재 편집위원 이영규, 사진 김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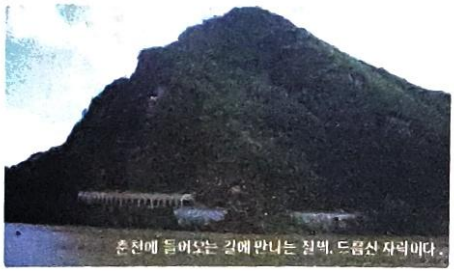
왼쪽사위 이관형, 오른쪽딸 최무숙



우리 곁에 있는 山
드름산


삼악산에서 바라본 드름산의 전경

춘천 시내를 감싸고 있는 산들을 돌아보는, '우리 곁에 있는 산'이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서 작년 후반기에 금병산, 대룡산, 오봉산, 삼악산, 북배산, 용화산 등을 차례로 소개했었다. 이 산들은 춘천을 대표할 만큼 유명한 산들이고, 타지에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 많이 알려진 명산들이다.


춘천에 들어오는 길에 만나는 칠백, 드름산 자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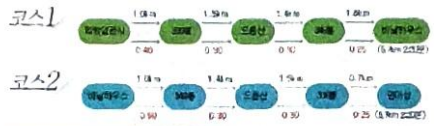
그러나 춘천에는 작지만 사랑스런 산들이 또한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름산'이다. 드름산은 칠전동에서 의암댐 사이에 위치한 산이다. 드름산이라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춘천시민이라면 늘 보는 산이다. 춘천에서 서울로 나가다보면 칠전동에서 옛 경춘국도를 따라 의암댐까지의 길에서 왼편에 위치한 능선과 새로 난 경춘국도를 따라 의암터널 쪽으로 난 길 오른쪽에 위치한 능선까지 포함하여 말발급 모양을 하고 있다. 반대로 서울 쪽에서 옛길을 따라 춘천에 들어설 때, 의암댐을 넘어서 절벽을 끼고 도는 길에 우뚝 서있는 산이기도 하다. 의암댐을 사이에 두고 삼악산과 마주한 산이라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절벽에 질려서 오를 생각도 못했지만 산책로처럼 난 길을 따라서 의암댐과 호수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에 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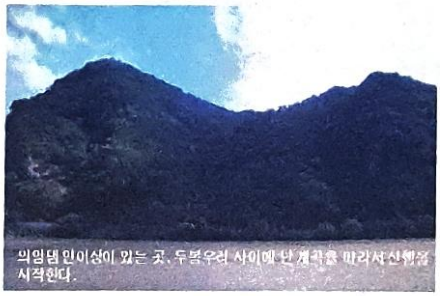
등산로



드름산 높이는 357m이고, 300m급 봉우리가 이어지면서 능선을 따라 산행할 수 있는 산이다. 그래서 산은 높지 않지만 능선을 따라 종주하다보면 6km, 왕복 코스를 하면 9km까지의 거리가 나와 제대로 산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코스가 가능하다.

먼저 능선을 따라 종주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이다. 또한 칠전동 대우아파트나 강남교회 쪽으로 등산을 시작하여 정상을 거쳐 의암댐의 인어상을 왕복하면 약 9km, 3시간 30분 정도의 산행을 할 수 있다.




의암댐 인어상이 있는 곳. 두봉우리 사이에 난 계곡을 따라서 산행을 시작한다.

춘천시민의 사랑을 받는 산

드름산은 긴 능선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1. 깊은 계곡의 분위기

먼저 인어상에서 등산을 시작하면 깊은 계곡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두 봉우리 사이에 난 계곡을 따라 35분 정도 가파른 길을 오르면 의암호수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에 이른다.



▲ 인어상 등산 시작지점의 표지판

2. 긴 능선

드름산 정상을 포함하여 300m급의 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파르게 오르기보다는 능선을 따라 걸어야 하는 산이 드름산이다. 높낮이 폭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여유 있게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


▲ 계곡 사이로 호수가 보인다.

3. 특별한 전망

정상이라고 해야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곳곳에서 사방을 조망할 수 있다. 요즘처럼 낙엽이 지고 난 후 이기에 더욱 그렇다. 특별히 의암댐 가까이에 있는 전망대는 삼악산, 의암댐과 의암호, 붕어섬, 덕두원과 송암리, 멀리 춘천 시내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 의암 터널 쪽으로 난 능선


▲ 전망대에서 본 춘천전경


▲ 붕어섬과 서면

4. 운동 및 산책

칠전동 쪽으로 오르면 동네 뒷산처럼 푸근한 느낌을 주는 산책로가 이어져 있다. 능선에 도달할 때까지 잘 정비된 길과 곳곳에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정상까지 놓여 있다. 1시간 정도이면 정상까지 왕복할 수 있기에 누구나 산책과 운동을 겸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전망대에서 본 삼악산


▲ 정상부분에서 바라 본 강촌

[편집위원 고 재 민]

춘천성시합창단
www.club.cyworld.com/ccachair
(클럽에서 춘천성시합창단을 치세요)
디렉터전
간판,현수막
십자가네온
현황판,실사
(사진출력)
인쇄
(명함,포스터,팜플렛)
TEL : 033)255-8644
FAX : 033)252-6676
H. P : 010-6383-8228

퓨전중화요리
퓨전중화요리의 진수를
맛 볼수 있는
강원대 후문의 아늑한 명소
153차이나
TEL : (033)244-1478
http://www.153china.net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예수 안에서 본 예술



갈대서곡(아크릴릭 혼합재료 2007년 김춘배 작)

언제부터인가 갈대만 보면 마음이 일렁이는 기분을 느껴왔다. 그래서 갈대를 소재로 즐겨 작업하곤 했다. 성경에도 갈대바다 등 갈대에 관한 이미지가 더러 등장한다. 구름 사이에 스며드는 빛은 영혼과 내면의 빛을 상징한다. 그래서 은은한 분위기의 풍경에 갈대의 실루엣을 연출해 보았다. 앞으로의 갈대작업을 위한 시작의 의미도 있고 하여 '갈대서곡'이라 이름 붙였다.

[편집위원 김춘배]

새해아침, 참 빛을 맞으라!

새해아침
붉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라
해와 달을 낳으신 창조주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께서
새롭게 놓으시는 태양을 보라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보라
새 마음을 품으라
너의 그리스도를 품으라

어제는 다 지났으라
태고에 아담에게 비추었던
역사의 해 속으로 스며 들었으라
이제는 더 이상 지난날에 있지 않도다
온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안 깊숙한 곳에서 꺼내놓으시는
새 태양을 맞으라
참 빛을 맞으라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여!
땅 끝까지 온 인류로 더불어
함께 맞으라
기쁨으로 맞으라
축복으로 맞으라
새 부대를 열어
새 해 새 빛으로 쏟아져 내리는
참 소망을 담으라
참 사랑을 담으라

새해 아침
참 빛과 함께하는
네 거룩한 영혼으로
네 성결한 육체로
강건한 한 해를 이루라
주의 나라를 이루라.

詩 / 진 국 현(춘천한길교회 권사)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체하셨습니까?



고 석 연
(가정의학과)

일반적으로 어느 병원이나 감기에 걸렸다고 오는 환자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체했다고 오는 환자들이다. 대부분은 머리가 아프고, 뱃속이 불편하며, 가끔은 손발이 차다면서 체한듯 하다고 자가 진단을 한 후에 병원을 방문한다. 상당수의 환자들은 이미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을 바늘로 딴 후에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서 처료를 받기 원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체했다는 말은 참 익숙하다.

현대의학에는 체했다는 병이 없기 때문에 체했다는 말 대신에 두통과 뱃속이 불편한 것과 손발이 찬 증상을 가진 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지를 말하고자 한다. 사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고,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다.

자주 체한다고 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편두통 환자인데, 편두통은 두통과 토할 것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편두통이신데요 라고 환자에게 설명하면 손발이 찬 증상이 있다면서 체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손발이 찬 증상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든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인 사람들은 한번쯤은 꼭 편두통을 생각하여야 한다.

요즘은 체했다고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감염성위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소위 장염이라고 하는 이 병 또한 두통과 속이 불편한 증상을 동반한다. 그러나 하룻밤을 지나면서 설사와 열이 난다면 감염성 위장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

만약 나이 많은 노인들이 체했다고 말한다면 심근경색(심장마비)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별히 당뇨약이나 혈압 약을 먹는 노인들은 심장마비가 와도 가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도 급성위장염으로 입원한 환자를 심전도를 시행한 후에서야 심근경색을 진단한 경우가 있으므로 노인환자가 체했다고 호소하면 항상 심근경색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시작한다. 가끔은 콩팥결석, 요관결석을 가진 환자가 체했다고 오기도 하고, 담낭염 같은 입원이 필요한 질환을 가진 환자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 체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질환이 아니다.

그렇다면 체했다고 생각되는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과식으로 인한 위장장애가 그냥 체했다는 말에 어울리는 병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들은 보통 집에서 메실액을 먹이거나 손발을 따고 증상이 금방 호전 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똑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병이 아주 많고, 가끔은 치명적인 질환일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늦지 않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별히 노인환자나 자주 체하는 사람들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예수 십대(J-Teen)의 방학생활

-수능시험을 마친 고3을 중심으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시 110:3)

이 시편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이 지은 것이다. 다윗은 지금 이 글을 읽는 그대를 이미 3000년 전에 바라보았다. 지난 6년 동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살벌한(?) 입시 전쟁을 치른 우리의 예수 십대들에게 따끈한 차 한 잔을 권한다. 정말 수고가 많았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대학 진학의 꿈을 향해 질주하였던 그대들의 삶은 어느덧 지난 과거가 되어 그대의 추억 속에 너부러져 있다.



이제 잠시 여유와 휴식의 시간을 맞이한 그대들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번 겨울을 어떻게 소중하게 보내야 될지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에게 접속하자.

곧 무엇보다 영성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자. 지금까지 그대는 어쩌면 대학진학이라는 유일한 목표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뛰어왔을 것이다. 이제 그대는 그대의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를 향해 질주해야 합지를 발견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곧 그대는 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반드시 찾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은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서버에 접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이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고 하고 싶다. 이번 겨울에도 변함없이 예수 십대들을 위한 집회(캠프)가 청소년 전문기관에 의해 여러 곳에서 개최된다.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아픔 대신 주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영혼의 그릇에 담아내자. 하나님의 것엔 후유증이 없다. 후회가 없다. 후환이 없다. 알았죠?



둘째, 건전한 취미생활과 운동을 하자.

그동안 우리 친구는 오랜 시간을 책상에서 보냈다. 이제 그 몸을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재동작 시키기를 바란다. 컴퓨터 게임보다는 간단한 조깅, 혹은 스케이트나 인라인 배우기, 수영, 헬스, 배드민턴 동우회 가입 등으로 기분 전환과 더불어 체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체력은 영력'이다! 라는 말을 누군가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몸이 처지면 만사가 늘어지고, 몸이 가뿐하면 만사가 개운하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뿐 아니라 몸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자.

셋째, 좋은 여행을 해보자.

특히 예수 십대들에게 권하고 싶은 곳은 다음과 같다. 성막을 견학할 수 있는 곳, 양지에 있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 주기철 목사 기념관, 손양원 목사 기념관 등이다. 이런 장소에서 우리는 산 믿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겨울바다 여행도 좋다. 더욱 좋은 것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기름 유출로 큰 고통 중에 있는 태안을 찾아 봉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마지막, 진짜 실력을 키우자.

특별히 성경으로 무장하기를 권한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종말 혹은 말세라고 한다. 이 기간은 입시보다 더 살벌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기간이다. 따라서 예수 십대들은 정말 성경으로 무장해야 한다. 온갖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마구잡이로 활동하는 이때에 성령의 검(엡 6:17)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곧 성경 실력을 키우자.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 크게 세 번외치고 성경을 다독, 정독해보자.

또한 영어 실력을 키우자. 지금까지 시험문제 풀이식의 영어 공부였다면 본격적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총체적인 영어 학습에 눈을 돌리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시대는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영어는 이제 필수적인 생활도구이다. 성경실력과 영어실력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결은 영어 성경을 읽는 것이다.

모쪼록 긴 여정 끝에 잠시 주어진 꿀 같은 휴식의 기간이다. 영육간에 재충전, 재회복하여 직장과 캠퍼스로 나아가서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힘내자! 샬롬!

길 근 수 목사(세인교회, 강원학생연려부 사역총무)

예 향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이유

뉴욕 시내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기사는 몇 년째 똑같은 노선을 매일 운전하면서 살아왔다. 그는 마음속에 꽉 들어찬 무의미함을 견딜 수가 없어 운행 중이었던 바로 그 버스를 몰고 노선을 이탈하여 플로리다까지 무작정 달렸다. 그 사람은 잠시의 해방감은 느꼈지만 불과 며칠 후 경찰당국에 체포되었다. "당신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일에 내 삶이 무의미하고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이 운전기사의 답변에 법정도 엄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해야할지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은 공허하다. 집은 더 화려해졌고, 도심의 거리는 더 아름다워졌지만 현대인들의 마음은 더욱 공허하다.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

(편집위원 최상도)

춘천성시신문 새로운 이름 "홀리타임즈"가 선정되었습니다.

◆ 다수의 공모 중 김춘배님의 "홀리타임즈"가 춘천성시신문의 새로운 이름으로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성 시 만 평

이 관 형
jysince93@hanmail.net



2008년, 우리가족 사진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단 체 환 영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대표 이 용 운 집사
(춘천온누리교회)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즉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언제, 누구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책을 통한 교회의 역할

엄 미 경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팀)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정부는 먼저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인 등록 · 판정체계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의학적 기준 외에도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부 서비스 체계와 연계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식사, 목욕, 외출 등을 돕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월 20~80시간 제공되었고, 대형 수용시설 시스템 위주의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꿔나갔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 장애인 고용 지원도 한층 강화되었다. 먼저 기능적, 환경적, 직업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직업적 장애기준'을 2008년까지 마련해 장애정도나 유형별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현행 의무고용제가 경증장애인 위주로 적용됐던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을 중심에 둔 의무고용제도 개편이 추진되었다. 경증장애인은 공공취업 알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하고, 중증장애인은 의무고용제를 통해 일할 기회를 확보하며, 최중증장애인은 보호시설 등 배려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재편해 나간다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과 복리시설을 갖춘 선진형 고용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다. 기업과 지자체, 정부 공동으로 해바라기 마을(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결국 장애 판정에서 취업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one step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을 통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장애인 교육기회 확충

아이부터 어른까지 장애인들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해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시범학교가 운영되었다. 또 2차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유아 취학 유도를 위한 유치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중증장애 대학생에게는 학습도우미가 지원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환경 개선도 점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장애수당 · 장애아동 부양수당 인상,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추진, 문화바우처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여성장애인 차별 해소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들이 건강, 교육, 취업, 결혼 등에서 중첩된 차별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여성장애인 임산부와 중증장애인에게 정기적인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대상을 현행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차상위계층 및 자연출산이 힘든 중증장애인까지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장애인의 문화 체육시설 이용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또 올해부터 장애수당 지급 대상이 10만 3000명에서 50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매달 5만원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에 한해 지급됐던 수당이 13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12만원이 제공되었다.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급속한 장애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 현상을 반영해 제정된 것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차별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4~6월 부처별 법령제도 개선 작업과 7~9월 시행령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2008년 2월 세부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회에서의 장애인선교

복지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알면,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저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점차적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기독교에서의 소외계층(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스템은 매우 소극적인 편이다. 장애인선교가 특수한 사역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더러 장애인에 대한 준비가 전무함을 보게 된다. 물론 겉으로 요란하게 내세우지는 않지만, 교회 내에 소속된 장애인을 사랑으로 섬기며 기쁨의 교제를 이어가는 교회도 있기는 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교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자세와 그들 마음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는 헌신의 자세일 것이다.

가장 쉬운 선교는 개교회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지역을 돌아보는 것이다. 교회가 속해있는 동사무소의 복지담당, 또는 사회복지관을 찾아가면 소외계층의 정보와 필요, 그들과 연계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 알 수 있다. 선교와 구제는 각각의 다른 분야가 아닌 동전의 앙면과 같이 함께 가는 길이다. 예수님께서도 떡과 복음을 동시에 제공해주셨다. 교회에서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담당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잘 활용하면, 선교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달의 말씀

이사야 60장 1-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강원도와 춘천의 성시화

춘천의 모든 영역마다 성시화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역이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특히 모든 희장단들과 새로 일함 신임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로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에 믿음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며, 선교대국으로 일어나도록. 특히 국민들에겐 희망을, 국가간엔 신뢰를 줄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도록.

· 모든 교회의 부흥을 위해

춘천의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가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되도록.

· 새로 조직될 성시화운동본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룰 믿음의 지도자들이 성시화운동 안에 세워지도록.

홀리타임즈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와이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원단가 인하로 대폭 내렸습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신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춘천시 효자1동 660-8 (중성교회 앞)
전 천 일 장로

중합광고기획
DTP 디티피아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 033.263.5152
Fax :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지3동 607-2
E-mail : chsch1784@yahoo.co.kr

가톨릭문화산책 — 영화이야기<7>

새도우 랜드(Shadowland)





급세기 회고 기독교 변증가인 신학자 C.S. 루이스와 미국의 여류시인이자 작가인 조이 그레샴 간의 러브 스토리를 그린 실화이다.

클리브 스테플레스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대학 재학 중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뒤 종전 후, 1925년 옥스포드의 모들린 학교의 특별 연구원으로 선발, '중세 애정 풍자시의 전통'을 전공하게 된다. 1950년까지 그는 문학이론, 공상과학소설 그리고 많은 신학의 저술로 권위와 명성을 쌓는다. 이 무렵 아동문학을 쓰기 시작했고,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Narnia Chronicles)' 전7권 중 제1권이 1950년에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영화화 되어 작년에 화제작이 되었으나 흥행에 크게 성공하진 못했다: 필자註). 그의 글은 문학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미국인 작가이자 시인이기도 한 조이 그레샴의 주목을 받게 된다. 당시 기혼으로 데이비드와 더글라스란 두 아들이 있었던 그레샴은 남편의 주정과 바람으로 결혼 생활이 파경 직전에 이른다. 그녀를 지탱시켜 주는 유일한 버팀목은 1950년부터 시작된 루이스와의 서신 교환이었다. 조이는 1952년 여름 영국을 방문한다. 이로부터 <새도우 랜드>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잭(루이스는 잭으로 애칭되었다: 필자註)과 조이는 닮은 점이 거의 없는 인물들이다. 잭은 조용한 생활에서 만족감을 찾았으며 감정의 표출보다는 지적인 주제를 놓고 토론을 즐기면서 더 큰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시해 버렸다. 한편 조이는 잭에 못지않게 지적이면서도 외향적이고 토론을 즐겼으며 생기발랄했다. <새도우 랜드>는 잭이 조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과정과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가둬 둔 내면적 구속을 극복해내는 힘을 심도 있게 그리고 있다. 그러나 잭의 깨달음은 조이가 골수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에야 얻은 것이므로 아름답지만 비극적이다. 조이는 절망적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4년이나 더 생명에의 열정을 불사르고 그들의 사랑도 깊어진다.

– 이상 홍성진 영화해설에서

<새도우 랜드>는 영화 <간디>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리차드 어텐보로의 1993년 작품이다. <양들의 침묵> 등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안소니 홉킨스와 <사관과 신사>, <애정의 조건> 등에 출연한 명배우 데보라 윙거의 원숙한 내면 연기가 조화를 이루어 깊은 감동을 준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유명한 대사로 이 영화를 본 모든 기독교인의 심금을 적신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이다.

[편집위원 김춘배]



책 소 개

세브란스 드림 스토리

이철지음. 꽃삽. 2007



세브란스, 그 아름다운 재발견

세브란스 병원 후원금 통장으로 매년 거액의 달러가 들어오고 있었다. 마침 새 병원 건물을 짓는 데 천오백 억의 막대한 건축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대체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 돈이야?" 날이 갈수록 증폭되기만 하는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안되겠어. 계좌추적을 해서라도 알아내야겠어." 지금이 어느 땐데, 막연히 앉아 후원자가 제 발로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중략) 얼마 지나 조사 자료가 우리 세브란스 측에 전달되어 왔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45년 동안의 후원금은 바로 'J.L. SEVERANCE 펀드'라는 사실이었다. J.L. 세브란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서'중에서

세브란스 병원의 탄생부터 세브란스를 만들어온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세브란스'라는 이름이 병원 건축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사업가 세브란스라는 사람에게서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와 명예를 버리고 낯선 땅에 온 의사들로 인하여 시작된 광혜원, 제중원, 세브란스의 역사이야기와 현대의 세브란스로의 주요 시스템 변화 스토리들까지 담았다. 무엇보다도 세브란스 의학교를 거쳐 간 다양한 근현대의 한국 의사들의 이야기와 저자 자신이 의사로서 느꼈던 고민과 사명감에 대한 글이 돋보인다. 이 책의 저자는 경기고등학교와 연세 의대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연세 의대 소아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재직 중인 이철이다. 세브란스 병원 부원장과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2000년에는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되었다. 연세의료원에서 40여년의 삶을 바친 진정한 세브란스인이다. 기획조정실장 시작과 함께 세브란스 새 병원 건축이 시작되었다. 저자는 새 병원 건축사의 중심에 있으면서 건축의 준비와 시작, 그 과정, 그리고 세브란스를 위해 헌신한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을 통해 세브란스씨가 남기고 간 숭고한 정신과 의사들의 삶의 현장이 널리 알려지기를 소망한다. 나도 누군가에게 세브란스가 되고 싶다!

[편집위원 고재만]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Y신협 04073-13-016959
예금주 조영훈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12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감촌감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광염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랑성결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장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예담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영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국민일보춘천지사	새민천주유소	
자연유치원	앤투어	
디티피아	쏘인데리어	
제시뉴욕	농협선교회	
김길홍	김진삼	김현철
김영명	박동환	신성균
심인섭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흥수	이용규
이원기	이원영	이판호
이학규	이병연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최상호
최치광	최예석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순복

춘천기독교연합회 2007 회비 납부 교회

광영장로	광염감리	나눔성결
늘사랑장로	동부장로	동신장로
북부장로	새순성결	새춘천성결
석사감리	소양성결	소양제일성결
순복음제일	순복음춘천	시온성결
신사우동	온누리장로	중앙성결
춘천장로	춘천제일감리	춘천제일장로
명화감리	행복을전하는	춘천중부
와이신협	김혜경	홍요셉

2008년 평생교육원 신입생 모집 안내

◆ 자격증 과정

강좌명	교육기간	개강일정	수강료	강의내용	비고
심리상담전문사 2급·1급	16주	1월 24일(목)	35만원	아동·청소년·노인상담 및 집단상담	검정료별도
장례전문지도사 2급·1급	16주	1월 25일(금)	35만원	장례 법률 및 행정 서비스	검정료별도
미술치료상담사	12주	2월 5일(화)	24 만원	미술 상담에 의한 심리 진단법	재료비 및 검정료 별도

* 미술치료상담사 –한국미술치료학회 인정 과정이며 소정의 과정을 필한 후 본원에서 미술상담 지료시 자격증 취득가능(민간자격증)
* 강사 : 성복 순(한림미술치료센터 소장)외 전임연구원

◆ 기타 과정

강좌명	교육기간	개강일정	수강료	강의 내용	비고
천연 화장품 비누 만들기	12주	1월 25일(금)	10,000원	기초 화장품, 에센스, 아이, 썬크림 등	재료비 별도
성전 꽃꽂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40,000원	중·소교회를 위한 꽃꽂이	재료비 별도
동양 꽃꽂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30분		40,000원	신비스럽고 오리엔탈스런 미를 쉽게 배우는 과정	재료비 별도
노래교실	예정				

* 수강료 납입방법
계좌입금(농협 204-01-166558 한국사회교육원), 신용카드가능

교육장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춘천와이신협, 춘천기독교방송국 3층)
문의처 : 본원사무실 ☎033) 241-8801, 8802, 9939 원장 김성호 부원장 권영식

교육인적자원부 등록 사회교육단체 정생교육시설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당신은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

최 영 조 목사
본보편집위원장 (갈릴리교회)

서점가에 들려보면 수많은 책들이 읽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수많은 책들 중에는 많은 독자들이 찾는 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여 읽혀지지 않는 책들도 있다.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양서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글은 글을 읽는 사람을 키우기 때문이다. 신문도 마찬가지이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글을 계속 접하다보면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신문을 읽다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홀리타임즈(성시신문)도 글을 읽는 독자들의 삶의 질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정신이고, 그 정신을 움직이는 것이 영혼이다. 우리가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정신은 물론 육체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독서는 자신의 영혼을 갈고 닦는 싸움이다.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사형선고와 같은 청력상실의 위기 앞에서 독서라는 명약을 통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헤렌켈러 역시 독서를 통해 삼중고를 딛고 위대한 삶을 개척할 수 있었다. 이렇듯 독서는 그 영혼을 치유하거나 회복하며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면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지면을 채워가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해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춘천에 사는 성도들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서로의 장벽을 헐고 하나 되게 할 줄 믿는다. 자신의 삶을 열어 나누지 않는 한 인간이 살고 있는 범주와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소중한 글을 통해 사색과 사유할 수 있는 심성을 기르게 되며 이를 통해 자기껍질을 벗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신문읽기를 통해 교회마다 개인마다 자기 울타리를 허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

새해에는 여러분도 홀리타임즈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다. 작게는 여러분의 삶을 나눔으로서, 더 나아가서 가치 있는 이 사역에 동역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다. 우리들의 바람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인 춘천의 구석구석을 찾아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동역자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동역자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이기에 사례가 없는 일에 열심히 헌신해 줌으로써 신문이 만들어졌다. 2008년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2008년 3일 클럽 어린이 전도자 훈련
일시: 1월 1일(화) 오후2시 ~ 5일(토) 오전11시 4박5일 숙박
장소: 본회 지정 훈련장 등록비: 15만원
등록대상: 교회학교 교사, 부장, 선교사후보생, 중2 이상 전도 희망자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ch/]
*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사무실 이전
- 온교동 169-13 온교프라자 5층

◆ 예스컴

1) 목동모임(중고교 기독동아리 리더모임)
일시: 1월 5일 (토) 오후 6시 중고교기독동아리연합 신임원선출
장소: 예담장로교회 세미나실

2) 14회 고3 영성훈련
일시: 2008년 1월 2일(수)~30일(수) 월-금 오전10:00~1:30
장소: 예담장로교회 세미나실(온교로타리 대용빌딩2층)
단기선교: 2008년 2월 초 / 인도네시아
등록비: 50,000원(교재/간식비 포함)
프로그램: 조별큐티, 나눔/토마서 성경공부(김선희 대표간사)
특강: 선교/심리/창조과학/기초신앙훈련/ 크리스천 생활백서/조별 주제연구 및 발제
등록문의: club.cyworld.com/yescomelove 244-5400, 한승연간사 010-3369-6994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나사렛 금식수련회
일시: 12월 30일(일)~1월 1일(화) 장소: 서울 부암동본부

2) 학생 생활훈련
일시: 1월 7일(월) ~ 26일(토) 장소: 춘천ccc회관

3) 네팔의료단기선교
일시: 1월 28일(월) ~ 2월 7일(목)

4) ccc 간사 1차 IBS
일시: 1월 28일(월) ~ 2월 1일(금) 장소: 서울 본부
내용: 출애굽기, 성인교육의 이론과 대학생사역의 실제

5) ccc 간사 2차 IBS
일시: 2월 11일(월) ~ 13일(수) 장소: 서울 본부
내용: 성서지리학 문의: 254-5776

*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문의: 010-9533-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033)252-1128 [http://town.cyworld.com/cywam]

◆ IVF

1) 아볼로 성경학교
일시: 1월 1일(화)~12일(토) 대상: 대학1년
장소: IVF 회관, 춘천강남교회

2) 성김이 훈련
일시: 1월 7일(월)~19일(토) 장소: IVF 회관
대상: 예비리더 1년차 이상 리더

3) BLC(말씀과 삶 훈련)
일시: 1월 14일(월) ~ 17일(목) 장소: IVF 회관
대상: 대학3년 이상(강릉, 원주, 춘천연합)
문의: 252-5200

◆ JDM

1) 교사수련회
일시: 2008년 1월 2일(수) ~ 5일(토)
장소: JDM훈련센터(033-243-6701)

2) 겨울 청소년 수련회
일시: 1월 15일(화) ~ 18일(금)
장소: 청소년 수련마을 보람원(충북 괴산 소재)
문의: JDM 청소년 선교부 (033)242-2829

3) 한국간사수련회
일시: 1월 21일(월) ~ 26일(토) 장소: JDM훈련센터

4) 태국 선교훈련
일시: 1월 28일 ~ 2월 5일 장소: 태국 방콕
문의: 252-3192 / 010-9054-3192

◆ GBT성경번역선교회

1) 전국비전기도회
일시: 1월 7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2) 28회 캠프위클리프
일시: 2008년 1월 8일(화) ~ 24일(목)
장소: 대전침례신학대학 세계선교훈련원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017-383-2416 [chunchoon@v2025.or.kr]

◆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모임

1)정기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2) 워십댄스 겨울 강습회(한국무용 편)
일시: 2008년 1월 3일 ~ 2월 21일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9시30분
장소: 경원대 태권도체육관 (석사동 우석초교 옆)
문의: 263-6022, 017-374-2440

◆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Scripture Union Korea)

1) 성경묵상훈련 초급반(3주 과정)
일시: 2008년 1월 17일(목)~31일(목) 오전10:30~1:00
장소: 춘천예담교회 세미나실
강사: 민만식 목사(강원지부 총무, 청메 집필자)
내용: 성경묵상이란, 동기와 필요성, 방법과 적용, 나눔과 실습
문의: 강원지부 033)763-9577, 019-9024-7057

2) 2008년 겨울 성경묵상훈련 LTC
일시: 2008년 1월 7일(월) ~ 10일(목), 3박4일
장소: 서울여대 바롬관
강사: 정창균 교수(합동신대원 신약학)
내용: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의: 북서울지부 (02)982-1226

◆ 2008학년도 지연유치원 장학생 모집

대상: 개혁교회 목회자 자녀(2002.3.1~2004.12.31생)
장소: 춘천시 후평3동 동사무소 건너편 흰색 5층 건물
일시: 2007년 11월 12일부터 선착순 모집
특혜: 교육비 전액 감면(월 20만원)
문의: 033) 241-5511 미니홈피를 참고[cyworld.com/jysince93]

◆ 2008년 신년교례회

일시: 1월 5일(토) 오전 11시
장소: 신성감리교회(김창수목사 시무)
대상: 각 교회 목사님, 모든 기독교단체
문의: 춘천기독교연합회 256-1260





■ 작은 교회에 꿈을 주는 교회



꿈의교회(담임:홍순석목사)는 12월 3일(월) 오전11시 남부시거리 3층 상가건물에서 권오서감독, 윤병식감리사, 김남훈감독, 김동휘목사, 이학영선교부총무 등과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판식과 축범식을 가졌다. 홍순석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 86년 인천시 강화 신성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여 목회 20주년 기념으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역(시골 목회2회, 담임목회3회, 미연합감리교회1회, 부담임목회2회, 개척1회)을 기초하여 앞으로 20년 남은 목회에 온 정열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꿈의교회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창 37:19) 말씀을 근거로 한국 작은교회에 꿈을 주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 CCF 선교부흥회



CCF(춘천교회포럼,회장:김수복목사)는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오후7시 나눔교회에서 인터콥대표 최바울, 임이스마엘 선교사 초청 부흥회를 열었다.

■ 군복음찬양선교대회



군선교강원지회(지회장:박인관)가 주최한 '군복음화를 위한 제15회 찬양선교대회'가 12월 15일(토) 오후6시 석사교회에서 열렸다.

■ 강원기독미술인 작품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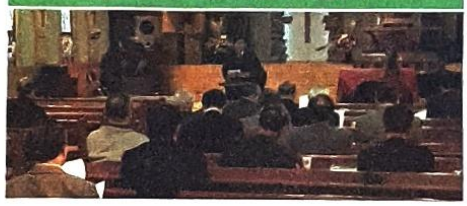
강원기독미술인 김명숙작가는 '마음의 감각' 작품으로 2007년 강원미술상을 수상하고 12월 17일~21일까지 춘천미술관에서 '예술적 표현에 드러난 신앙적 치유'라는 주제로 수상 기념전을 열었다. 또 본보편집위원이며 강원기독미술인인 김춘배화백도 12월 28일~1월 3일까지 춘천미술관에서 제2회 작품전을 열었다.

춘천, 성탄의 빛으로 물들다!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한균목사)가 주최하고 춘천시가 후원한 제1회 춘천크리스마스트리축제가 12월 20일(목) 오후 7시 공지천 야외음악당에서 화려하게 개막식이 열렸다. 이광준 춘천시장, 허천 국회의원, 증경회장 김주환목사, 전기독교연합회장 이원호목사를 비롯해 춘천시민 약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불꽃축제와 트리점등식이 진행됐고, 밥우이웃을 위한 나눔행사도 마련됐다. 또한 제이락, 강원경찰악대, 춘천CBS소년소녀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송 축하공연과 올림픽 댄스스포츠 아카데미 청소년시범단의 멋진 댄스 공연이 펼쳐졌다. 성시화의 도시 춘천에서 전국최초로 열린 트리축제는 29일까지 10일 동안 열렸다.

2007년 성시본부 총회



2007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총회가 12월 21일(금) 오전11시 평화교회에서 열렸다. 허천국회의원, 조남진초대본부장, 김주환전본부장, 이학규출리클럽회장, 마훤규장로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사업보고, 회계보고와 정관개정, 2008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총회에서는 춘천기독교연합회장 한균목사가 본부장으로 추대됐다.

구세군 사랑의 자선냄비



매년 12월이면 아름다운 종소리와 함께 빨간 자선냄비를 명동입구에서 볼 수 있다. 올해도 구세군교회는 12월 13일 시종식을 갖고 자선냄비모금을 실시하였다. 올해 목표액은 2천만원이었으나 경기불안정과 대선영향으로 목표액이 미달되자 25일까지 하루연장모금을 실시했다. 현재 춘천에는 춘천교회, 소양교회, 북춘천교회 3곳의 구세군 교회가 있다.

■ 제4기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수료식



(사)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강원의 청년지도자 양성을 위해 추진된 제4기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수료식이 12월 18일 오후6시30분 라데나리조트에서 김진선지사, 안동규원장, 김중석강원도민일보사장 등 수료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행복을 나누는 만찬, 동감(童感)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고주에)은 12월 19일(수) 오후6시30분 라데나리조트에서 한국복지재단 홍보대사 게그맨 이홍렵씨의 사회로 아동보호기금마련 및 지역내 인사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행복을 나누는 만찬, 동감(童感)"을 개최하였다. 1부 만찬, 2부 이홍렵 토크쇼, 3부 행복을 나누는 경매로 진행됐다. 경매에는 2007년 강원미술상을 수상한 김명숙 작가의 작품 '마음의 감각'과 소설가 이외수씨의 작품 '메기' 외에 유명작가의 작품들이 출품되었으며 경매로 얻어진 수익금 전액은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하여 쓰이게 된다.

■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춘천시와 춘천YMCA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 형성과 청소년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12월 22일(토) 춘천사대부고 체육관에서 제13회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수여고 댄스팀인 MECCA의 축하공연과 3점슛 대회가 펼쳐진 이번 경기에서는 고등부 CEMETERY팀과 중등부 HMS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 창조도시 워크숍



창조도시 시민포럼(상임대표:박의범)은 12월 18일(화) 오전 12시 석정가든과 춘천YMCA 본관에서 춘천시와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이광준춘천시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또 12월 18일(화)~19일(수)까지 2일간 2007 사업결산 및 2008 사업계획을 위한 워크숍을 남이섬 나미나라호텔 안데르센홀에서 개최했다.

■ 사랑의 온차 전달식



군선교연합회강원지회(지회장:박인관목사)는 12월 20일(목) 오전11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2007년 사랑의 온차 전달식을 가졌다. 이사장 김주환목사, 박상호목사, 지회장 박인관목사, 총무 박태원목사 등 후원교회 목회자와 군복 및 군종 관계자들 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2박스(1박스당 20Kg, 커피, 녹차, 17곡율무 차)와 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하였고, 순복음춘천교회는 홍부자집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였다.

취재 · 김 미경

200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안내

본교는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오순절 성령 운동의 기초가 되는 영성훈련과 학문적 이론을 통해 전인적인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모집기간 : 2007년 12월 24일(월)~2008년 2월 18일(월)**
교무처 : (033) 257-2740, 016-342-4812
FAX : 241-2741

모집학과 및 응시자격

모집학과	과 정	응 시 자 격
신 학 과 (야간)	4년제	1.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자격을 갖춘자 2. 신앙생활 및 가정생활에 무흠한 자 3. 침례(세례)를 받은 자 4. 타 신학교 2년 이상 수료자 및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단, 편입생에 한함)
목회학과 (야간)	3년제	
편 입	2년제	


이사장 김 주 환 목사


학장 이 준 일 목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강원신학교

제1회 춘천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CCTF 2007 Chuncheon Christmas Tree Festival 2007





〈후원교회 명단〉

♣1,000,000원 후원교회
감리교 / 평화교회, 석사교회, 신성교회, 제일교회, 우두교회
장로교 / 동부교회, 춘천제일교회, 춘천중부교회
성결교 / 소양교회, 중앙성결교회
순복음 / 순복음춘천교회

♣500,000원 후원교회
감리교 / 강촌교회, 광염교회
성결교 / 나눔교회, 소양제일교회
침례교 / 거성교회

♣300,000원 후원교회
장로교 / 늘사랑교회, 은혜교회, 온누리교회 동신교회

♣200,000원 후원교회
감리교 / 효자교회
장로교 / 동성교회
순복음 / 남춘천순복음교회
그리스도의 / 남춘천그리스도의교회

♣100,000원 후원교회
감리교 / 효자교회
장로교 / 춘천사랑의교회, 시민교회, 우리교회
성결교 / 새순교회
순복음 / 시온성순복음교회

※ 12월 27일 저녁 은행 마감시간까지 입금확인된 내역입니다.

〈트리시상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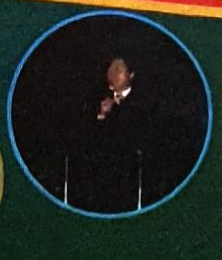
♣단체상 1위 웰컴투 코리아
2위 춘천시 직장선교회
3위 석사동 주민자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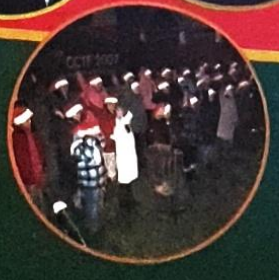
♣특별상 춘천시보건소

♣개인상 1위 민정완(퇴계동 2자A)
2위 남상구(석사동)
3위 정효진(후평1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